

의안번호	제 146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4월 일 (제299회)

<p>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p>
-------------------------------------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1년 4월 일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의안 번호	146
----------	-----

제안연월일 : 2011년 4월 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이유

-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대두되었으며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최적지인 충청권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국무총리님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님

최근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안되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시설을 분  
산 배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

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익을 높이고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과학계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영남권 민심달래기와 함께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여 당초 약속한 충청권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